

# 姜시장 “특별시 시행령·시스템 통합 착수”

6월23일 공포 목표...자치법규 정비  
필수조례 우선 정비 후 단계적 통합  
행정정보시스템 100여개 통합 추진

강기정 광주시장은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 특별법 통과 이후 시행령 제정과 자치법규 정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등을 6월23일 공포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행령에는 재정지원 특례 사항과 권한 이양, 첨단 산업 육성 등 핵심 제도를 담고 있으며 초안을 마련해 현재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특별법에서 위임된 조례 제정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광주·전남의 총 2천587개 자치법규를 전수조사해 중복되거나 상이한 규정을 걷어내고 있다”며 “광주는 약 1천200개, 전남은 약 1천300개 가량의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통합 실행 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을 꼽았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19일 오전 송원대학교 학생회관에서 열린 ‘광주시가 전하는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이야기’ 행사에 참석해 통합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통합 이후 변화상에 대해 청년들과 대화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강 시장은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는 첫 날부터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100여개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일원화하는 것”이라며 “주민등록, 지방세, 도로명주소 등 행정 전반의 시스템 통합이 핵심”이라

고 말했다. 이어 강 시장은 “2천792개의 공인과 72종의 공부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이러한 작업은 제정이 수반되는 만큼 추경을 통해 재정을 반영하도록 요구해 놓은 상태”라고 덧붙

였다. 강 시장은 또 “법을 통과가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로 급한 것은 행정시스템 통합”이라며 “간판이나 표지판 교체 같은 물리적 변화보다 정보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시장은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는 7월1일부터 시민들의 일상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조치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행정 시스템 통합이 이뤄지면 통합 이후 시·도민들의 생활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시장은 통합 이후 조직과 인사 준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강 시장은 “조직과 직제, 최소한의 인사 체계는 준비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인수위 과정을 거쳐 확정될 것”이라며 “통합시장이 인사를 하게 되겠지만 기본적인 틀은 사전에 준비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조례는 모든 것을 한 번에 통합하기는 어렵다”며 “조직과 인사 등 필수 조례는 7월1일에 맞춰 우선 처리하고 이후 3개월 단위로 단계적으로 통합할 계획”이라고 로드맵을 소개했다.

특히 강 시장은 “시·도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는 사전에 충분히 숙성시켜 7월1일 이전에 방침을 정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통합 등은 아직 급한 과제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변진기 기자

## 신정훈, 연일 김영록 공격...‘맞장 토론’ 제안

전남도정·공약 비현실성 등 비판 공세  
금지사추 “흑색선전에 일일이 대응안해”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신정훈 국회의원이 경쟁자인 김영록(전남지사 직무정지) 예비후보에 대해 연일 전남도정과 공약의 비현실성을 비판하며 공격하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지사의 반론이 일시적 지표로 본질을 흐리기나 책임임을 과거로 돌렸다”며 “모든 쟁점에 대해 시·도민 앞에서 ‘공개 맞장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신 의원은 “김 지사는 여전히 실제 없는 500조 원 반도체 투자를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삼

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기업이 우리 지역에 발을 들이게 하려면 RE100 산단 조성사업과 인프라 구축이라는 선결 과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방대한 공정을 지난 8년 동안 한 걸음도 떼지 못했으면서 어떻게 단 4년 만에 끝내겠다고 장담하느냐”며 “명백히 허울 뿐인 장밋빛 공약이며 시·도민을 기만하는 ‘희망고문’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신 의원은 서울 용산구에 아파트를 두고 무안 관사 생활을 하는 김예비후보를 겨냥해 “김지사와 자체 증단 한 명이라도 전남·광주에 내려와 정착한 가족이 있느냐”며 “자산지소는 에너지에만 국한된 원칙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용산

집을 처분하고 지역에 집을 사야 진심을 겨우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신 의원은 전남 경선 후보 대상 토론회에서도 김 후보의 ‘400만 인구’ 공약 등을 겨냥해 “지난 20년 동안 20만명이 줄어든 광주·전남의 인구를 317만에서 400만으로 늘리겠다는 것은 임기 4년짜리 단체장이 낼 공약은 아니다”라며 “비현실적인 공약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면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예비후보 측은 “사실을 왜곡하는 과도한 흑색선전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며 “다음 주 진행되는 정책배심원제 권역별 심층토론회에서 신 의원 측 주장을 사실에 근거해 조목조목 반박하겠다”고 밝혔다. /양시원 기자

## 무안서도 고병원성 AI 발생...道, 확산 차단 주력

영암·나주·구례·곡성에 이어 무안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는 등 가금류 농가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H5형 AI 항원이 검출된 무안 현경면의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농

림수산검역본부의 정밀 검사 결과, H5N1형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진됐다.

육용오리 1만6천여마리를 사육하는 이 농장은 사육단계 예방감사에서 AI 항원이 검출됐다.

전남에서는 올해 동절기 들어 총 11건의 고병

원성 AI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영암 시종면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최초 발생한 이후 나주 5건, 영암·구례 각 2건, 곡성·무안 각 1건 등이다. 전국적으로는 총 59건 발생했다.

전남도는 AI 항원 검출 즉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2명을 투입해 해당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살처분 등 긴급 방역 조치를 했다. /양시원 기자

### ▶1면 ‘전기요금 공약 실현 가능성’서 계속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갑)은 에너지믹스와 이익공유제를 전락으로 내세웠다. 풍부한 재생에너지에 소형모듈원전(SMR) 등을 결합한 전력 공급 구조를 구축해 산업용 전기 뿐만 아니라 가정용 냉·난방비까지 에너지 비용을 낮추겠다는 게 핵심이다.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은 값싼 전기보다는 ‘전기가 소득이 되는 구조’에 초점을 맞췄다. 전남광주 신재생에너지공사 설립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전기요금 관련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공방은 지난 17-18일 경선 후보 TV토론회 때 촉발된 후 이어지고 있다.

당시 김 예비후보는 민 의원의 kWh당 100원 공약을 겨냥해 “현재 한전 공급 단가를 고려할 때 실현 가능한 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면 반박했다.

민 의원은 “단순한 가격 구호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ESS, 계통전력을 결합한 전력 포트폴리오 모델”이라며 “전문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미 실현 가능한 산업 전력 모델로 검증됐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다른 후보들의 토론 내용을 언급하며 “공약 경쟁이지만 실제 효과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드는 공약이 많다”고 비판했다.

정 후보는 다른 후보들의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기요금 공약에 대해 “신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것 같지만 간헐적 불안정성이 있어 기업 유치를 위한 유인책이 요구되고 있다”며 “해상풍력 문제는 정부 정책 사이클이 있어 확신을 못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는 SMR 등 에너지믹스를 통한 안정적 전력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 후보는 “전남은 재생에너지 자원이 전국에서 가장 풍부하지만 전력계통 포화로 제약이 크다”고 지적한 뒤, 송·배전망 확충과 제도 개선을 우선해야 한다는 현실론을 내세웠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토론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전력 조달 구조와 법·제도 정비, 자원 마련, 송배전망 확충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약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며 “단순한 숫자 경쟁을 넘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AI가 광주매일신문을  
똑똑하게 읽어줍니다.**

### ◀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람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 650-2099  
650-2071-2  
F. 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 1) 꼬마상가 2억7,000  
유동로타리 6차선대로변 코너중심상업지 30평  
2층건물 매수즉시 사용가능(1층 점포4칸)주차4대
- 2) 양산동 주거1종 대지110평 시세50%  
평당160만원 바로 건축가능 매가1억7,600



- 3) 중흥동6거리 상업지 193평 단층상가  
도로코너 평당900 총가 17억3,700만원

**급히 구합니다**

**토지, 건물 투자조건맞으면 바로 계약됩니다**

[결제전문] **즐거움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돈	빌려준돈
공사대금		투자금
장비대금		약정금
전세금		임대료
부도어음		구상금

**받아 드립니다**

###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안채권, 상가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